

1930年代 中國企業慣行과 經營環境*

김지환**

목차

序論

- I. 一次大戰 이후 中國工業의 發展과 衰退
- II. 企業慣行과 工業經濟의 쇠퇴
- III. 經濟不況과 생산상의 변화
- IV. 國民政府의 統制政策과 企業의 經營環境

結論

序論

중국근현대경제사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 가운데 하나는 경제현상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가 다분히 정치사적 평가에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 본 논문은 제목을 1930년대로 한정하여 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차대전에서 1937년 중일전쟁 이전까지의 시기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HK교수

라는 정치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혁명의 승리 이후 毛澤東, 陳伯達의 四大家族 經濟獨占 및 買辦的 官僚資本主義論이 경제사 연구에서 주요한 분석틀로 자리하면서 중국기업사, 공업사의 연구 역시 외국자본과 민족자본의 대립으로 구조화되었으며, 후자는 국민정부 및 관료자본, 제국주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지배와 침식으로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¹⁾ 이렇게 본다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종래 민족기업을 압박하고 있던 관료 및 외자기업 등 일체의 모순적 경제관계를 일소한 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久保亨, 奥村哲 등은 중국 최대의 공업부문이었던 방직공업 등의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1949년 이전 중국경제 발전의 구체적인 지표를 검증해 냈으며, 발전의 동인으로서 경제정책에 주목함으로써 국민정부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새롭게 제기한 바 있다.²⁾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적지않은 연구자들은 남경국민정부 시기인 1927-1937년의 10년 간을 ‘중국경제의 황금시대’로 높이 평가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 중국의 공업경제는 중일전쟁 직전기에 국내시장의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며, 더욱이 중일전쟁을 위한 물질 기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공업의 발전과 쇠퇴라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저변에 있는 기업관행과의 관계 속에서 경영환경을 파악하고, 중일전쟁

1) 대표적으로 陳伯達, 『中國四大家族』, 1946, 許濂新, 『官僚資本論』, 海燕書店, 1947; 吳承明, 『中國資本主義發達史』 1, 2, 人民出版社, 1985, 1990, 嚴中平,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1957; 島一郎, 『中國民族工業の展開』, ミネルヴァ書房, 1978 등을 들 수 있다.

2) 예를 들면 久保亨, 『戰間期中國の綿業と企業經營』, 汲古書院, 2005; 金志煥, 『中國國民政府의 工業政策』, 신서원, 2004; 奥村哲, 『抗日戰爭前中國工業の研究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35-2, 1976 등을 들 수 있다.

직전기까지 중국공업의 거시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중국공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방직공업의 사례를 통해 발전의 계기가 되는 일차대전기로부터 1930년대까지를 관통하여 그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³⁾

발전과 쇠퇴의 배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중국기업의 경영에서 오랫동안 관성으로 유지되어 온 기업관행과 그로부터 형성된 경영환경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특히 일차대전이라는 외부적 환경과 공업 내부의 산업자본 조달문제, 은행자본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공채정책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공업계 스스로의 자구 노력인 생산상의 전변과 더불어 중앙정부였던 남경국민정부의 경제정책과 그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I. 一次大戰 이후 中國工業의 發展과 衰退

일차대전은 중국공업에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방직공업에서도 紗廠들이 받고 있던 수입 면사에 의한 경영상의 압박이 크게 감소되었다.⁴⁾ 구미의 참전국들은 자국의 군수품 생산에 전력

3)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중국공업에서 방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3년도 공장수에서는 2,435개 가운데 821개로서 전체의 33.7%, 자본 총액은 406,872(천원) 가운데 166,828(천원)으로서 약 41%, 노동자수에서는 총 인원수 500,233명 가운데 308,678명으로서 약 61.7%, 제품판매 총액의 경우 1,113,974(천원) 가운데 483,585(천원)으로서 43.4%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金志煥, 『中國紡織建設公司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6. 1, 3쪽.

4) 중국의 면사 수입량은 1909-1911년의 1,320,197擔으로부터 1919-1921년에는 807,249擔으로 감소되었다. 嚴中平,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1955. 8, 74쪽.

해야 했으며, 전쟁으로 인한 해상 운송이 불가능하여 중국시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 수 십년 이래 부단히 증가되어 온 중국의 면사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방직공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면사와 마찬가지로 면포의 수입량 역시 크게 감소되어, 1916년의 경우 1913년에 비해 약 850만담이나 감소되었으며, 중국의 면사 수요 공백은 약 250만담에 달하게 되었다.⁵⁾

대전 초기에는 전쟁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원면의 가격이 상승하고 면사의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매우 불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14년에는 중국자본사창에서 16番手 면사 1包를 생산할 경우 19.58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에 비해 1915년에는 4.38원의 결손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1916년에는 이윤이 7.61원으로 상승하였으며, 1917년부터 면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1919년에는 1包의 이윤이 무려 70.56원에 달하였다.

〈표 1〉 일차대전 직후 면사의 이윤 (1915-1922년)

연도	제조비용	면사가격	순이익
1915	130.95	126.57	-4.38
1916	136.45	144.06	7.61
1917	175.66	212.59	36.93
1918	200.25	221.68	21.43
1919	200.16	279.72	70.56
1920	206.64	271.61	64.97
1921	200.28	210.49	10.21
1922	217.13	196.50	-20.63

* 단위: 16번수 면사 1包

** 출처 : 嚴中平,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1955. 8, 165쪽.

5) 森詩彦, 『五四時期の民族紡績業』, 同朋舎, 1983. 12, 23쪽.

중국방직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紗廠의 자산보유액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14년 각 사창의 평균자본액은 22,702원에 불과하였으나 1917년에는 626,831원, 1920년에는 1,106,207원으로 증가되었다.⁶⁾ 고이윤에 매혹되어 사창이 속속 설립되면서 바야흐로 중국공업의 황금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1914-1922년의 9년 간 순수 중국자본으로 설립된 紗廠은 모두 49개였는데, 1920-1922년 사이에 설립된 것이 39개였으며, 1921년 한 해만 해도 17개 사창이 신설되었다. 이는 일차대전 발발까지의 20여년 동안 설립되었던 총 공장수의 무려 2.5배에 상당하는 수치였다. 1924년의 설비 규모를 살펴보면, 1915년에 비해 방추수에서는 약 3배, 직기수에서는 약 4.6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⁷⁾ 이러한 결과 1916년에는 면사 시장의 50%, 1918년에는 70%가 중국자본사창의 생산품에 의해 점유됨으로써 국내시장의 자립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대전기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하였으며, 1922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차 대전기의 전시호황으로 말미암아 난립한 중국의 紗廠들은 전쟁이 종식된 이후 동종상품의 과잉생산 및 공급으로 인한 불황에 직면하여 재편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창의 난립에 대해 이미 1920년 1월 방직공업의 동업공회인 華商紗廠聯合會는 자신이 발행하는 정간물을 통해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방추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식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앞으로 2, 3년 후에도 이러한 호황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⁸⁾ 라고 경고하였다.

일차대전 시기 급격히 증가한 생산설비와 대조적으로 대전 직후

6) 龔俊, 『中國新工業發展史大綱』, 華世出版社, 1978. 2, 131-133쪽.

7) 黎名邨, 『中國棉業問題』, 『東方雜誌』 28卷 18號, 1931, 33-35쪽.

8) 華商紗廠聯合會, 『華商紗廠聯合會季刊』 2卷 1期, 1920, 1쪽.

원료면화의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과잉생산으로 말미암아 면사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 면사의 판매 가격이 생산코스트 이하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1922년에 들어서자 면사 16番手 1包的 생산코스트는 155.25兩이었는데, 면사의 판매 가격은 140.50兩으로 14.75兩의 손실을 보았다.⁹⁾

같은 자료로부터 생산비와 대비하여 면사의 판매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22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에 이르기까지 4개월 동안 紗廠의 손실은 막대하였다. 원면의 가격은 11월 117.15兩, 12월 131.35兩, 1월 145.55兩, 2월 156.20兩으로 급등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은 30兩으로 4개월 동안 동일한 비용으로 묶여 있었다. 이러한 결과 사창은 11월에 16.15兩, 12월 20兩, 1월 22.55兩, 2월 29.90兩의 손실을 기록하였다.¹⁰⁾ 이와같이 면화의 가격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면사의 가격이 하락하는 棉貴紗賤의 현상으로 인해 사창의 손실이 발생하자 중국 방직공업에서는 총체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일차대전의 호황이 종결되면서 1922년 이후 중국공업에는 불황이 도래하여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23년부터 1931년까지의 9년 동안 신설된 紗廠은 총 15개이며, 방추수에서도 1930년에는 1922년의 약 1.6배, 직기수에서는 2.3배 증가되었다.¹¹⁾ 이와같은 외양적 설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9년간 改組되고 임대된 것이 19개 사창, 채무 상환의 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접수 관리된 곳이 5개 사창, 정업한 것이 11개 사창, 공장을 매각한 것이 17개 사창으로 총 52개 사창이 경영상 큰 변동을 겪었다.¹²⁾

9) 濱田峯太郎, 『支那に於ける紡績業』, 日本堂書店, 1923, 21쪽.

10) 濱田峯太郎, 『支那に於ける紡績業』, 日本堂書店, 1923, 21-22쪽.

11) 嚴中平,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1957, 187-188쪽.

1930년대 초 세계공황의 여파와 9·18만주사변, 상해사변 등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으로 말미암아 중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9·18만주사변의 발발과 만주국의 수립 이후 중국방직공업은 면제품 판매시장의 4분의 1, 즉 25%에 상당하는 시장을 잃고 말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1926년부터 1930년까지의 약 5년 동안 동북 각 세관을 통해 만주 지역으로 유입된 면사의 총액은 매년 평균 1,288만 8,977關兩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제품이 990만 6,183관량으로 77%를 차지하였다. 면포의 수입액은 5,319만 9,255관량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제품이 1,385만 7,174관량으로 약 26%를 차지하였다.¹³⁾ 이로부터 만주시장의 폐쇄가 중국방직공업에 준 타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시장의 상실이 본격화된 1932년 이후 중국자본사창은 25.89주, 약 100만추에 달하는 설비의 조업단축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1933년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조업단축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의 심야작업을 중지하기로 하는 등 23%의 조업단축에 돌입하였다. 중국사창의 동업공회인 화상사창연합회의 6월 말 조사에 따르면 조업을 완전히 중지한 것이 12개 사창, 총 426,688추에 달하였으며, 심야작업을 중지한 것이 4개 사창, 97,288추로서 전국의 조업단축율은 약 23%에 달하였다.¹⁴⁾

12) 周秀鸞, 『第一次大戰時期中國民族工業的發展』, 上海人民出版社, 1958, 112-113쪽.

13) 金志煥, 『官利 慣行이 중국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중국근현대사연구』 49집, 2011. 6, 77쪽.

14) 金志煥, 『官利 慣行이 중국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중국근현대사연구』 49집, 2011. 6, 78쪽.

〈표 2〉 1930년대 전반 中國紗廠의 조업단축률 (%)

일시	개업방추수	휴업방추수	평균 휴업시간	총방추수 환산 休業週日數
1932년 하반기	4493	658	2039	2.26
1933년 상반기	4585	2676	630	2.33
1933년 하반기	4640	1119	1724	3.16
1934년 상반기	4678	1224	1583	3.89
1934년 하반기	4777	964	1598	2.44

* 출처 : 發智善次郎, 『支那綿紡織業の現段階』, 『滿鐵調査月報』 15卷 12號, 1935. 12, 34쪽.

만주시장의 상실로 인한 시장의 축소와 면제품의 적체 및 경영악화는 근본적으로 농촌수직업의 불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동북세관의 폐쇄로 농촌 수직도포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북성에서 도포업으로 유명한 高陽, 定縣, 玉田, 淸豐 등의 경우 생산제품을 주로 장성 밖의 만주지역으로 수출해 왔는데, 9·18사변 이후 판로가 막히면서 이 지역의 도포업이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하였다.¹⁵⁾ 뿐만 아니라 산동성의 濰縣 역시 도포업으로 이름난 지역이었는데, 이 곳에서 생산되는 개량도포 역시 생산 부진에 빠지면서 이익이 날로 감소되었다. 강소성 常熟의 직포업 역시 쇠락하여 5家가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복주에서는 100여개의 직포창 가운데 다수가 도산하여 불과 30여家만이 남게 되었다.¹⁶⁾

더욱이 농촌공업의 부진은 다시 농가의 소득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다시 구매력을 저하시켜 기계제공업의 제품 소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더욱이 1930년대 공황 이후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구매력의 저하를 가속화시켰다.

15) 王子建, 『民國二十三年的中國棉紡織業』, 『東方雜誌』 32卷 7號, 1935. 4, 43쪽.

16) 王子建, 『民國二十三年的中國棉紡織業』, 『東方雜誌』 32卷 7號, 1935. 4, 43쪽.

II. 企業慣行과 工業經濟의 쇠퇴

紗廠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국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官利慣行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관행이 출현한 이유는 정말 이래 사회의 자본이 토지나 고리대에 투자되어 산업자본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회계연도가 끝날 때에 이윤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자본 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관행을 가리킨다.

이러한 관행은 비록 사회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유인하는 순기능도 일부 있었지만,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일차대전 기간과 같이 이윤이 높은 시기에는 官利의 지불이 가능하였지만, 세계공황의 여파가 미친 1930년대의 경우 불황과 구매력의 감소, 시장의 축소로 인한 제품의 적체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 관리의 존재는 경영을 더욱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이와같은 관리는 차입금, 회사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적립금, 감가상각 비용 등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배당의 수준은 통상적으로 연리 7.5-10% 정도였는데, 여기에 특별배당금인 紅利를 더할 경우 13.4-23%에 달하였으며, 높은 경우 무려 30-32%에 달하기도 하였다.¹⁷⁾ 이와같이 중국의 기업은 “이익금의 적립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관리, 즉 자기자본 이자 지불제도의 존속과 연고자 등용, 과도한 부채 비율 등으로 말미암아”¹⁸⁾ 그 발전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었다.

17) 尾崎五郎, 『綿紡織業を通じて見た支那民族工業の現段階的特質』, 『滿鐵調査月報』 17卷 9號, 1937. 9, 26쪽.

18) 尾崎五郎, 『綿紡織業を通じて見た支那民族工業の現段階的特質』, 『滿鐵調査月報』

중국자본사창의 경영상 어려움은 일본자본사창이 자국계 은행의 저리 금융 지원의 혜택을 향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24년 중국자본사창의 생산비 수준은 16번수, 20번수에서 일본자본사창에 비해 20-21% 높았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1935년에 이르면 63%로 확대되었다. 양자의 차이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중국자본사창의 경우 관리관행과 더불어 부족한 경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지불이라는 항목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표 3〉 중국자본사창과 일본자본사창의 생산비 항목 비교 (면사 20번수 1包, 단위:元)

자본별	공임	동력	기계수리	영선	소모품	포장	장려금	직공보호비	운수	영업	이자부담	보험	잡비	총코스트
중국사창	10.5	5.5	1.8	0.4	1.7	1.5	1.2	0.2	0.2	2.5	15.0	0.2	3.0	43.7
일본사창	5.8	4.8	0.6	0.4	0.5	1.2	0.6	0.5	0.2	2.0	2.7	0.1	1.0	20.4

* 출처 : 金志煥, 『官利 慣行이 중국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중국근현대사연구』 49집, 2011. 6, p.77.

경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차입금은 생산비에서 이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공장자본가들은 자본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중고기계를 구입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자동직기 등 최신에 기계를 갖추고 있는 곳은 申新紗廠 등 몇몇 사창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오래된 구식의 紡錘와 織機는 생산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결국 생산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 사창에서는 落棉과 기계의 파손, 마모 등의 결함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紗廠은 원면을 구입할 경우에도 투기적 매매 교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원면을 구입할 때에 면사의 番手보다도 가격으로 판단하여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 십종의 조악한 면화를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면화를 구입할 경우에도 외상구매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 역시 면사, 면포의 품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10일 기한으로 면화를 외상으로 구입한 이후 가능한 신속히 10일 이내에 이를 제품화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구매한 면화상에 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만주시장의 폐쇄나 구매력의 저하 등에 직면할 경우 도산 등 경영상의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화상사창연합회가 “중국자본사장은 경영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면화를 충분히 구입하여 원료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 16번수 면사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면을 구입하고도 시장에서 20번수 면사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16번수용 원면을 가지고 20번수 면사를 생산하고, 심지어 14번수 면사 생산에 적합한 원면으로 20번수 면사를 생산하고 있다. 어떻게든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겠지만, 제품에는 기술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다.¹⁹⁾

이밖에도, 중국공업의 발전에서 커다란 장애 가운데 하나는 사회자본이 공업에 투자될 수 있는 매개체인 은행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북경정부 이래로 중국에서 은행의 성립과 역할은 주로 공채의 수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은행업이 발전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다분히 공채

19) 金志煥, 『官利 慣行이 중국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중국근현대사연구』 49집, 2011. 6, p.75.

수용이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공채 수용의 편의를 위해 액면가격 이하로 공채를 할인해 주는 관행을 보편적으로 지속하고 있었다. 1927-1932년에 걸쳐 남경국민정부가 발행한 19종 공채의 연 이율은 8%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20% 정도의 높은 이윤이 보장되고 있었다. 남경국민정부 재정부가 발행한 공채는 바로 할인관행을 통해 수용자의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업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할인을 통한 수용의 결과 공채의 실제 이윤을 살펴보면 1932년까지는 8%, 1932년 이후에는 6%였지만 할인율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 연 이율은 22%-43%에 달하였다.²⁰⁾

중국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채는 1934년 말 7억 5천만원-8억원에 달하였으며, 이 수자는 불입자본의 무려 4.6배에 상당하였으며, 또한 예금 총액의 33%에 상당하는 액수였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가 발행한 공채의 78%가 중국의 은행자본가의 소유로 전환된 것이며, 더욱이 14-20%에 이르는 이윤이 보장되어 있었다.²¹⁾ 이와같이 국민정부는 스스로의 재정을 공채의 발행을 통해 유지하고 있었으며, 은행 역시 국고에 투자함으로써 이윤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은행은 불안정한 상공업에의 투자를 기피하고 이윤이 높은 정부공채의 투기에만 열중하였던 것이다.

공채의 높은 이윤은 당연히 공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자를 제고시킬 수밖에 없었다. 1934년 방직공업에 대출된 은행자본은 대략 1억 5천만원으로 추정되었는데, 방직자본가들은 이를 위해 약 2천만원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16번수 면사 1표를

20) 金志煥, 『남경국민정부의 공채정책과 통일공채 재론』, 『동양사학연구』 115집, 2011. 6, 312-313쪽.

21) 發智善次郎, 『支那綿紡織業の現段階』, 『滿鐵調査月報』 15卷 12號, 1935. 12, 19쪽.

생산할 때마다 이자부담이 무려 15원에 달하는 셈이었으며, 이와같은 높은 이자 부담은 당연히 중국 면사의 시장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었다.²²⁾

공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전체의 10-11%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출 시에도 이자가 매우 높았다. 각 지역의 대출 이자의 수준을 보면, 상해 6-12%, 무석 7.8-10.8%, 무한 8-12%, 기타 제남, 청도, 구강, 장사 등이 6-20%에 달하였다. 이와같은 높은 이자를 감당하더라도 紗廠이 은행, 전장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용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출의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업은 공업에 대해 기계,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유사시의 위험을 이들에게 전가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대출시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던 대회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중소사창의 경우 반드시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大紗廠의 연대보증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경제불황이나 시장의 경색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경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대출 자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이는 일개 회사의 범주를 넘어 동종업계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²³⁾

Ⅲ. 經濟不況과 생산상의 변화

192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에 직면하여 공업계 내부에 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방직공

22) 發智善次郎, 『支那綿紡織業の現段階』, 『滿鐵調査月報』 15卷 12號, 1935. 12, 19-20쪽.

23) 金志煥, 『남경국민정부의 공채정책과 통일공채 제론』, 『동양사학연구』 115집, 2011. 6, 320-323쪽.

업의 경우 지속적인 면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면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생산의 변화는 이와같은 경제적 조건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국에서 기계제 면공업의 발전은 방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방적업의 발전은 바로 농촌수공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으며, 紗廠은 완제품인 면포를 생산하기 위한 반제품인 면사를 생산하는 것이 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기계제 면업이 왜 면포의 생산보다 면사의 생산, 즉 방적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을까?

일반적으로 기계제 면포는 농촌수직업에서 생산되는 수직 면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양자의 구분에 대해 말하자면, 전자는 전기나 증기 등의 동력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대적 생산, 혹은 공장제 생산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후자는 생산을 위한 동력이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자와 구별된다. 농촌수직업의 경우에도 드물게 수력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소수의 예로서 매우 드문 경우였다.²⁴⁾

수공업은 기계제 면사를 매입하여 이를 원사로 사용하여 면포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한 공정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수공업이 방적업에 비해 방직업에서의 공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적업에 대한 방직업의 노동생산성의 차이로부터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자면, 수공업의 노동자 한 명이 하루 11시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하여 면사를 생산할 경우 총 4兩에 상당하는 16번수 면사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紗廠에서 기계제 면사를 생산할 경우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24) Kang Chao, 『The Growth of a Modern Cotton Textile Industry and the Competition with Handicrafts』, 『China's Modern Economy in Historical Perspective』, Stanford Univ. Press, 1975 참조.

평균 20斤의 면사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계제 면사의 노동생산성이 수직 면사에 비해 80배나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면사부문에서 수직업과 기계제공업과의 노동생산성 차이와 비교해 보면, 면포의 경우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노동자 한 명이 11시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하여 14파운드 粗布를 생산할 경우 수직업에서는 총 생산량이 약 12丈이었음에 비해 기계제 직포업의 경우 약 50丈의 면포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기계제 직포업의 노동생산성이 수직업에 비해 약 4배 높았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와같이 수직공업과 기계제공업에서 면사와 면포를 생산할 경우 나타나는 노동생산성 차이의 크기가 바로 기계제공업이 수직공업을 대체하는 우선 순위로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차대전 종전 이후 동종상품의 공급과잉으로 말미암아 방직업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자 동업공회인 화상사창연합회는 “근래 방직업의 경영악화는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면사의 판매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면사의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면포가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즉 방직업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방직업을 발전시켜야 한다”²⁶⁾라고 생산상의 改進黨을 주창하였다.

그렇다면 화상사창연합회는 어떠한 근거로 방직공장의 부설을 통해 방직업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창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동연합회는 “방적과 방직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경영할 경우 이익이 매우 크다. 함께 경영하면 서로 보완적으로 이익이 되며, 분리한다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방적공장에서 방직을 겸영하지 않는다면 소비가 적체될 것이며 양자를 겸영한다면 면사와 면포를 동일공장에서 모두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방직을 하면서 방적을 하지 않을 경우 면사를 구입

25) 嚴中平,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1957, 267쪽.

26) 華商紗廠聯合會, 『華商紗廠聯合會季刊』 4卷 3期, 1923. 7, 1쪽(사설).

하기 위한 번잡한 수속과 비용이 소요된다. 방직과 방직을 겸영한다면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면사를 바로 방직을 위한 직포공장으로 공급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²⁷⁾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생산상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치는 다음의 기록에서 “精紡機에서 산출된 면사를 면포를 생산하기 위한 직포공장으로 직접 조달할 경우 면화의 搖紗, 打包 등의 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1梱당 3兩 6錢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3백대의 직포기를 경영할 경우 하루 20梱의 면사를 소비한다면 약 72兩 정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일년에 300일을 작업기간으로 계산할 경우 2만 1600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1梱당 해관세 2兩 4錢을 계산하여 1년에 모두 1만 4400兩 정도를 더할 경우 합계 3만 6천兩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⁸⁾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명기하고 있다.

그러면 기계제 방직공장에서 생산된 면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면포는 原色綿布, 粗布, 細布, 粗斜紋布(粗綾木綿, 雲薺布), 細斜紋布(細綾木綿), 標布(天竺布) 등의 여러 종류가 있고 色花布는 각종 모양직 및 염색의 면포를 가리킨다. 초기 겸영직포가 발흥했던 1920년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華商紗廠, 日商紗廠, 英商紗廠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조포가 위주였다.²⁹⁾ 물론 일부 중국자본사창에서 약간의 細斜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생산량은 미미한 형편이었다.

1922년 사창이 보유하고 있던 직기의 수량을 살펴보면, 중국자본사창이 5200대, 영국자본사창 2100대, 일본자본사창이 1900대였다.

27) 華商紗廠聯合會, 『華商紗廠聯合會季刊』 2卷 2期, 1921. 1, 25-26쪽.

28) 華商紗廠聯合會, 『華商紗廠聯合會季刊』 2卷 2期, 1921. 1, 26쪽.

29) 구체적인 생산품의 내역은 濱田峯太郎, 『支那に於ける紡績業』, 日本堂書店, 1923, 69-71쪽의 표 참조.

이와같이 중국자본사장의 경영직포 생산은 기타 자본의 사창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으며, 면포 생산량도 많았다. 그러나 1925년을 기점으로 일본자본사장에서 면포를 생산하기 위한 직기의 증설이 급속히 진전되어 오히려 화상사창을 능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방적공장에서 면포의 생산을 검할 경우 경영상 유리하다는 사실을 일본자본사창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925년 5·30운동 이후 격렬한 배일운동의 와중에서 면사의 판매에 어려움을 느낀 일본자본사창이 면포의 생산 경영을 일층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자본별 직기의 증가상황과 경영직포의 생산상황은 다음의 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표 4〉 자본별 직기의 증감 비교(단위: 대)

연도	중국자본사창	일본자본사창	영국자본사창	총계
1918	3,502	1,636	1,100	6,238
1919	2,650	1,486	2,353	6,489
1920	4,310	-	-	-
1921	5,825	-	-	-
1922	6,767	2,986	2,800	12,553
1924	9,481	3,929	2,863	16,273
1925	11,121	7,205	2,348	20,674
1927	12,109	9,625	2,348	24,082
1928	13,117	10,801	1,900	25,818
1929	20,926	19,017	2,891	42,834
1930	15,718	13,554	2,480	31,752
1931	17,629	15,983	2,691	36,303
1932	19,081	17,591	2,891	39,564
1933	20,926	19,017	2,891	42,834
1934	22,567	21,606	2,891	47,064
1935	24,861	23,127	4,021	52,009
1936	25,503	28,915	4,021	58,439

* 출처 : 嚴中平,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1957, 부록 표2.

〈표 5〉 화상사창과 일상사창의 면포 생산량 비교(단위: 匹)

자본별	1926-27	1927-28	1929-30	1930-31
중국자본사창	4259	6009	6896	6854
일본자본사창	4740	7755	8154	7588

* 출처 : 陳眞編, 『中國近代工業史資料』 4輯, 三聯書店, 1966, 206쪽.

1932년 중국자본사창에서 생산된 면포의 내역은 총 생산량 312,150千碼 가운데 粗布의 생산량이 295,783千碼로서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³⁰⁾ 이렇게 볼 때 중국자본사창에서 생산되고 있던 면포는 대체로 조포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1933년도 중국자본사창과 일본자본사창의 면포 생산내역 비교(단위:%)

생산 내역	중국자본사창	일본자본사창	기타	계
粗布	40.1	51.4	8.2	100
細布	19.4	80.4	0.2	100

* 출처 : 島一郎, 『中國に於ける民族綿工業の發展と衰退』, 『經濟學論叢』 15, 1966, 278쪽.

일본자본사창의 경우 1932년 총 484,890천마의 면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조포의 생산이 70% 정도로서 대부분이 조포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화상사창에 비해 조포의 생산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자본사창은 세포류의 생산이 총 136,614천마로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자본사창이 조포의 생산에서 세포의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이유는 기계계 면포의 생산이 조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경쟁을 피하여 하급품의 생산에서 고급품의 생산으로 전환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중국 방

30) 嚴中平,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1957, 부록표13 참조.

직업계는 ‘棉貴紗賤’의 불황을 통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제 면포, 즉 겸영직포의 생산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IV. 國民政府의 統制政策과 企業의 經營環境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제품의 생산에서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1934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자본사장에서 면사 1포를 생산할 경우 원면 가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번수의 경우 84.87%, 16번수 82.61%, 23번수는 77.64%에 달하였다.³¹⁾

1922-1927년 중국자본사장의 총 방추수는 360여만추로서, 1추당의 연간 소비 면화를 3.5擔으로 계산할 경우 매년 1,230만담의 원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1922년 이후 장기불황으로 휴업과 조업단축이 빈번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조업률을 전체 방추수의 50-60%로 보면 필요한 원면은 700만담 정도가 된다. 그런데 중국면화의 연산액을 보면 1918-1922년의 평균 생산량에서 수출 수량을 제하면 약 700만담, 이 가운데 방적업에서 사용하는 면화의 수량은 60%인 400만담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³²⁾

1929년 3월에서 10월까지의 면사 10번수 1포의 원료비용은 183.32원이었는데, 여기에 노임비용 9.53원, 동력비용 2.35원, 재료비용 4.19원, 고정자본 3.07원, 이자 6.03원을 합치면 생산비용은 208.5원에 달하였다. 판매가격은 206.96원으로 약 1.54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16번수의 경우 1포 당 원료비 201.43원, 기타 비용이 42.39원으로서 생

31) 趙岡, 『中國棉業史』, 聯經出版事業公司, 1977, 185쪽.

32) 楊天溢, 『中國に於ける日本紡績業と民族紡の相剋』, 『日中關係と文化摩擦』, 1982. 1, 284쪽.

산비는 243.82원에 달하였는데, 판매가격은 236.98원으로 무려 6.85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³³⁾

따라서 면화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과 면사 가격의 상대적 하락은 방직공업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원료 면화를 확보하는 일은 방직업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위한 구심체가 된 것이 바로 방직공업의 동업단체인 화상사창연합회였으며, 정부로서도 전체공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방직공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면화를 확보하는 일은 초미의 정책적 현안이 아닐 수 없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방직공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공황 이후 방직공업의 경영악화에 대처하여 방직업계의 동업공회인 화상사창연합회는 자체적인 회복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이와같은 상황 하에서 국가권력이 전체 중국경제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통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방직공업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의 의지는 이미 손중산이 『建國方略』에서 “방직공업이 중국의 주요한 공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면제품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사실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면화의 생산지에 직접 紗廠을 건설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감독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국의 인민들에게 면사, 면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한 방침”³⁴⁾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국민정부는 국제연맹으로부터 구미의 자본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33) 陳眞編, 『中國近代工業史資料』4輯, 三聯書店, 1966, 213-214쪽.

34) 小谷網吉, 『國民政府の産業政策』, 滿鐵調査課, 1930. 3, 48-49쪽.

경제건설에 착수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도기관으로서 1931년 6월에 全國經濟委員會를 설립하였다. 이와함께 국민정부는 전국경제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면업통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농업건설에 착수함과 동시에 면화 등의 개량 및 증산을 통해 공업원료의 수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료 품질의 향상에 착수하였다. 1933년 10월 11일 國民黨 第378次 中政會常任委員會는 방직공업과 농업을 통제함으로써 양자를 상호 긴밀히 연계시킬 방침을 결의하는 동시에, 면업통제위원회의 주임위원으로 陳光甫를 임명하였다.³⁵⁾

전국경제위원회는 세계공황 이후 중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농촌에서 대표적인 원료상품인 면화의 재배를 활성화시키고 개량함으로써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면화를 전국 紗廠에 공급함으로써 방직공업의 원료 부족을 구제하는 동시에 원료 가격의 안정과 제품의 품질 향상을 의도한 것이다. 이와같이 면화의 증산과 개량은 농촌경제를 회복시키는 농업정책인 동시에 공황 이후 원료부족으로 곤경에 처한 공업을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업정책이었다.

立法院長 孫科는 방직업과 농촌 구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방직업의 쇠퇴는 植棉 농가의 판로를 두절시켜 농촌경제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그 영향은 전사회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전국경제위원회는 면공업의 구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³⁶⁾고 언급하였다. 이와같이 면업통제위원회는 공황 이래 면업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면화의 개량과 증산, 棉田의 확대, 그리고 綿工業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5) 全國經濟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會議紀要』 1集, 1933. 1, 1-2쪽.

36) 『全國經濟委員會與棉業』, 『紡織週刊』 3卷 39期, 1933. 9. 22, 1195쪽.

綿業統制委員會 조직조례의 제2조는 전국의 면업 및 방직업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 및 장려, 징벌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면업통제위원회는 조직조례에서 스스로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전국경제위원회는 전국의 면업 및 방직업의 개진 및 발전과 그 합리화를 도모하는 건지에서 조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면업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2) 면업통제위원회는 전국의 면업 및 방직업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 및 장려, 징벌의 권한을 갖는다.

3) 면업통제위원회 위원은 방직, 식면, 금융 등의 각계로부터 전형하여 국민정부가 임명한다.”³⁷⁾

면업통제위원회는 조직조례에 근거하여 국민정부 중앙위원, 방직업계의 영수, 은행계의 영수, 농업계의 학자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이와같은 구성은 면업통제위원회 설립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주도 하에 방직업계와 농업계, 그리고 금융계를 상호 밀접히 연계시킴으로써 원면의 증산과 개량을 도모하고, 이를 紗廠의 원료로 공급함으로써 공황 이래 곤경에 빠진 공업과 농업을 회복시킨다는 정책적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하에 은행자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금융업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7) 金志煥, 『綿業統制委員會와 南京國民政府의 綿業政策』, 『亞細亞研究』 40卷 2號, 1997. 12, 210쪽.

〈표 7〉 국민정부 면업통제위원회의 구성

직책	이름	구 성
주임 위원	陳光甫	은행가(중앙은행, 중국은행)
상무위원	李升伯	방직업자
상무위원	唐星海	방직업자
상무위원	鄒秉文	농학자(금릉대학, 중앙대학농학원교수)
상무 위원	葉琢堂	은행가(중국농민은행총경리)
위원	謝作楷	은행가(중국건설은행공사)
위원	陳立夫	국민당중앙조직부장
위원	榮宗敬	방직업자
위원	張公權	은행가(중국은행)
위원	杜月笙	은행가(중회은행)
위원	貝淞蓀	은행가
위원	張嘯林	화상사포교역소
위원	郭順	방직업자
위원	何炳賢	실업부국제무역국장
위원	胡筠庵	화상사포교역소
위원	劉蔭蕪	실업부공업사장
위원	孫恩磨	농학자(면화전문가)
위원	聶潞生	방직업자
위원	穆湘珩	국민정부실업부(시험소)화상사포교역소
위원	陳伯莊	농학자
위원	李浩駒	
위원	徐升丞	

* 출처 : 全國經濟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職員錄』, 1937. 1, 36-38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업통제위원회는 은행자본의 지지를 통해 원료 면화의 증산과 개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국방직공업의 불황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면화의 증산과 개량정책이

방직공업의 발전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중국방직공업의 동업단체인 화상사창연합회는 1937년도 제20회 정기총회의 보고서에서 “중국방직공업의 존폐는 원료의 자급 여부에 달려있다”³⁸⁾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사창의 경영이 원료면화의 안정적인 수급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면제품의 생산코스트에서 원료면화의 비용이 통상 80-90%에 달하기 때문에, 면화가격의 상승과 공급의 불안정성, 열악한 품질은 직접적으로 紗廠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와같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원료면화의 공급과 확보는 중국 방직공업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정부 행정원 농촌부흥위원회는 “방직공업의 경영이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면화의 가격 상승 및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면화의 생산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된다면 방직공업도 따라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³⁹⁾라고 지적한 것이다.

면업통제위원회는 첫째, 면화의 생산액을 증대시켜 원료면화의 자급을 달성하고 수입면화를 대체하며, 이를 발전시켜 오히려 면화의 수출을 통해 무역의 입초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면화의 품질을 개량하여 국내외 시장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계획으로서, 예하에 中央棉產改進黨을 설립하여 각 성에 면화 개량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각 성의 면화개량사업 및 보급사업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업통제위원회는 농민들에게 면화의 증산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면농을 지도하여 면화의 생산, 판매조합을 조직하려는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였다.

38) 名和統一, 『支那に於ける紡績業と棉花』, 『東亞經濟研究』1, 有斐閣, 1941. 3, 180쪽.

39) 行政院農村復興委員會, 『中國農業之改進黨』, 1933. 4, 5쪽.

1936년도 조합의 설립 상황을 살펴보면, 하북성의 경우 합작사의 수가 무려 700여개에 달하였으며, 호북성에는 190개의 합작사가 신설되었다. 하북성과 호남성 두 성의 합작사 사원수만 하더라도 약 5만명에 달하였으며, 합작사 소속 棉田은 50萬畝에 달하였다.⁴⁰⁾ 합작사의 각종 자금은 상해의 각 은행들이 조직한 ‘中華農業合作社貸款銀行團’의 대출을 통해 충당되었는데, 이를 통해 1935-1937년의 3개년 동안 약 400여만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된 면화를 판매하기 위해 면업통제위원회는 상해에 ‘棉花運搬販賣總辦事處’를 설립하여 각 성의 합작사를 대신하여 가격을 정하여 판매를 대행하였는데, 3개년 동안 판매한 면화의 수량이 약 10여만擔에 달하였다.⁴¹⁾

이밖에 국민정부 재정부는 공채가 중국산업 발전의 주요한 장애임을 적극 인식하고, 기존의 공채를 정리하여 통일공채를 새로이 발행하였다. 통일공채가 기존의 공채와 구별되는 특징은 법정이율인 6%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통일공채의 발행을 계기로 은행자본가는 기존에 공채에 대한 일방적인 투기를 지양하고 공업과 농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상자본가들은 기존에 공채가 공상업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 왔으며, 그러한 이유는 공채의 이율이 공상업에 대한 투자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상자본가들은 재정부의 통일공채 발행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⁴²⁾

더욱이 폐제개혁을 통해 1935년 11월 4일 이후 화폐의 발행권한을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정부계은행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중

40) 『支那の棉業統制と最近の棉産概況』, 『滿鐵調査月報』 17卷 6號, 1937. 6, 226쪽.

41) 『支那の棉業統制と最近の棉産概況』, 『滿鐵調査月報』 17卷 6號, 1937. 6, 226-227쪽.

42) 『申報』, 1936. 2. 5.

래 각종 은행에 부여해 왔던 화폐의 발행권한을 사실상 회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공채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새롭게 공상업에 대한 투자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종래 중국의 각종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발행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란 바로 지폐를 발행하기 위해 60%의 현금준비금과 40%의 보증준비금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증준비금에는 어음이나 유가증권 등의 여러 형식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가증권이었으며, 또한 보증준비를 위한 유가증권의 대부분이 바로 국내공채였기 때문에⁴³⁾ 화폐의 발행을 위해서라도 은행은 내채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와같은 화폐 발행권의 변화 역시 중국공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자연히 기업의 금융환경 역시 개선되게 된 것이다.

특히 법폐의 발행을 통해 통화가치를 안정시킨 조치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법폐의 발행 이후 국내의 물가는 법폐로 표시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외환의 태환율 역시 법폐로 표시되고 변동되었다. 물가의 경우 상해의 도매물가지수는 법폐 개혁 직후 10% 정도 상승하였으며, 1936-1937년에 걸쳐 약 15% 정도 상승함으로써 거의 1931년의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은 공황기의 물가 하락을 다시 회복시키는 성격이 강했다. 통화가치의 안정은 다시 외환 태환율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화폐의 태환율은 법폐 1원당 1실링 2.5펜스 정도를 유지했으며, 미국 달러의 경우 1원당 30센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⁴⁴⁾ 이와같은 수

43) 吳承禧著, 玉木英夫譯, 『支那銀行論』, 叢文閣, 1937. 4, 142쪽.

44) 野澤豊, 『中國の幣制改革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81. 2, 89-90쪽.

준은 폐제개혁 이전에 태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비교하여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국내 물가와 외환 태환율의 안정은 당연히 국내시장의 회복과 대외무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기업의 경영환경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공채의 발행은 금융업으로 하여금 공상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공채에 대한 중국은행의 투자액은 1930년 총 투자액의 48.9%에서 1934년에는 41.91%로 감소하였음에 비해, 공업에 대한 투자는 1930년의 26.4%에서 1936년에는 43.02%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업의 농촌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金城銀行의 사례를 살펴보면, 江浙 지방의 농업 대출이 1928년에 비해 1937년 7월에는 무려 490.1%로 증가하였으며, 총액이 2,209,149원에 달하였다.⁴⁵⁾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1936년이 되면 중국공업에는 호황의 국면이 출현하여 중일전쟁 발발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폐제개혁의 성과와 화폐가치의 안정, 해외로부터 화교 송금의 증가, 경제 발전에 따른 저축의 증가, 은행의 공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와같은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폐제개혁을 통한 화폐 가치의 안정과 통일공채의 발행을 통해 종래 금융업의 공채투기관행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상업에 대한 은행의 투자가 증가하고 동시에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은행 경제연구실이 “작년(1935년)에는 수요의 부진과 과잉 생산으로 말미암아 동업자 사이의 대립도 격화되고 경영은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올해(1936년)에 들어서 각지의 금융이 완화되고 소비가 신장되었으며,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45) 中國人民銀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室, 『金城銀行史料』, 上海人民出版社, 1983, 368쪽.

각 공장이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결손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게 되었다”⁴⁶⁾라고 지적한 사실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은행의 금리 저하를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해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34년 말 금리는 최고 0.60원 최저는 0.20원이었으며, 이자율은 1935년 0.569%에서 11월에는 0.444%로 저하되었다. 폐쇄개혁 이후 이자는 대폭 하락하여 1936년 1월 최고 0.09원, 최저 0.05원이었으며 이후 계속 안정을 보여 최고 0.08-0.10원, 최저 0.06-0.08원을 기록하였다. 이자율도 대폭 하락하여 1935년 12월에는 0.322%, 1936년 후반에 이르면 0.250%로 하락하였다.⁴⁷⁾

중앙은행이 세무통계로부터 산출한 중국의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1935년 사사분기부터 1936년 이사분기에 걸쳐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거의 4.0-10.7% 하락하였음에 비해, 1936년 삼사분기에는 13.3% 증가하였으며, 사사분기에는 14.6% 증가, 1937년 일사분기에는 23.7%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1936년 중반 이후 생산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⁸⁾

1935년 상반기에 전국 사창의 방추 481만추 가운데 134만추가 정업 상태에 있었는데, 1936년 가을 이후 시장이 급속히 회복되면서 면사포의 소비가 증가되었다. 사창들의 영업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1936년 말-1937년 초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면사포의 생산량과 거래량이 30% 정도 증가하였다. 1927년 화상사창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1927년 중국자본사창은 73개 사창, 방추수는 200만추에 달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하는 곳은 64개 사창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은 상황이

46) 野澤豊, 『中國の幣制改革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81. 2, 103쪽.

47) 嚴立賢, 『1935年國民政府幣制改革的意義及其局限』, 『晚清以降的經濟與社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12, 69쪽.

48) 野澤豊, 『中國の幣制改革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81. 2, 96쪽.

1936년에 이르면 96개 사창 274만추에 달하게 되었다.

물가의 안정에 힘입어 면사 및 면포의 생산은 사창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면 金城 12과운드 생지면포의 도매물가를 살펴 보면, 1932년 6월 이후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여 1935년 10월 최저가격 6.2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폐제개혁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어 1937년 6월에는 10.4원으로 상승하여 전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시장 가격의 상승은 이윤을 증대시켰다. 綾織綿布 1疋의 생산코스트가 7원 2角 4分이었는데 비해 시장가격은 8원 정도에 형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1疋 당 7角 6分에 달하는 공전의 고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⁴⁹⁾

이와같이 남경국민정부는 중일전쟁 직전기에 국내시장의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며, 1930년대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지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중일전쟁 직전기로서 항전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취였다고 할 수 있다.

結 論

일차대전은 중국 공업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전쟁으로 인한 수입품의 두절은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일용필수품을 중심으로 공산품의 가격이 급등하였다. 공산품 가격의 급등은 다시 공장과 기업에 고이윤을 보장하였으며, 여기에 자극되어 중국공업은 급속한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중국공업의 발전은 세계사적 사건인 일차대전이라는 외부적 환경과 불

49) 野澤豊, 『中國の幣制改革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81. 2, 100-101쪽.

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의 종식은 전시호황에 힘입어 난립한 중국공업에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종전 직후 중국공업은 설비의 과잉 투자로 인한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1930년대 세계공황, 일본 제국주의의 동북 침략과 만주국의 수립은 동북시장을 중국본토로부터 유리시켜 중국경제의 곤경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결과 일차대전 종전 직후부터 1930년대에 걸쳐 중국공업은 개조, 재편, 임대, 매각 등 적지않은 경영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기업 내부의 경제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 호황으로 난립한 공장, 기업은 경영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官利라는 일종의 경제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관리관행이 사회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특히 불황의 시기에는 공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중국의 역대 정부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한 공채는 은행, 전장 등 금융자본으로 하여금 공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가로막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업이 곧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중국공업은 이와같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방직공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종래 주력이었던 방직업으로부터 일전하여 겸영직포의 생산을 강화시켜 나갔다. 기계제 면공업은 종래 농촌수공업에 의해 생산되는 면포와 동종의 면포를 생산함으로써 불황을 타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면포가 종래 수공업으로부터 기계제공업의 생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남경국민정부 역시 이와같은 공업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면업통제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면화의 개량, 증산정책과 공채의 정리를 통해 금융업의 투자를 공업과 적극 연계시킨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실제로 공산업 및 농업에 대한 금융자본의 투자 비중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노력을 통해 중국공업은 불황을 타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소위 ‘중국경제의 황금시기’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차대전 이후 중국공업의 발전과 쇠퇴를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외부적 노력을 통해 불황을 타개해 나갔던 발전의 방향성은 분명히 보인다. 따라서 일차대전 이후 1930년대 초반 공업, 기업의 도산, 개조 등 경영상의 변화는 발전을 위한 일종의 정리와 재편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방직공업, 사창(紗廠), 일차대전, 세계경제공황, 관행, 통일공채, 중국국민정부

(논문투고 : 2011.11.23/ 논문심사완료: 2011.12.20/ 논문게재 확정일: 2011.12.26)

참고문헌

신문 및 정간물

『申報』

『東方雜誌』

『華商紗廠聯合會季刊』

『紡織週刊』

『東亞』

단행본

金志煥, 『中國國民政府의 工業政策』, 신서원, 2004.

金志煥, 『中國紡織建設公司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6.1.

全國經濟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職員錄』, 1937.1.

全國經濟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關係法令集』, 1940.2.

全國經濟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會議紀要』 1集, 1933.1.

行政院農村復興委員會, 『中國農業之改進』, 1933.4.

綿業統制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綿業統制委員會三年來工作報告』,
1937.6.

國民黨中央黨部經濟計劃委員會主編, 『十年來之中國經濟建設1927-
1936』, 1937.

方顯廷, 『河北省之棉花合作販賣』, 1938.6.

陳伯達, 『中國四大家族』, 1946.

許滌新, 『官僚資本論』, 海燕書店, 1947.

吳承明, 『中國資本主義發達史』 1,2,人民出版社,1985,1990.

- 嚴中平,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1957.
- 嚴中平,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1955.8.
- 龔俊, 『中國新工業發展史大綱』, 華世出版社, 1978.2.
- 周秀鸞, 『第一次大戰時期中國民族工業的發展』, 上海人民出版社, 1958.
- 千家駒, 『舊中國公債史料』, 中華書局, 1984.
- 陳眞編, 『中國近代工業史資料』4輯, 三聯書店, 1966.
- 趙岡, 『中國棉業史』, 聯經出版事業公司, 1977.
- 王松等, 『宋子文傳』, 武漢出版社, 1993.
- 黃鑒暉, 『中國銀行業史』, 山西經濟出版社, 1994.
- 中國人民銀行上海市分行金融研究室, 『金城銀行史料』, 上海人民出版社, 1983.

- 吳承禧著, 玉木英夫譯, 『支那銀行論』, 叢文閣, 1937.4.
- 島一郎, 『中國民族工業の展開』, ミネルヴァ書房, 1978.
- 久保亨, 『戰間期中國の綿業と企業經營』, 汲古書院, 2005.
- 森詩彦, 『五四時期の民族紡績業』, 同朋舍, 1983.12.
- 濱田峯太郎, 『支那に於ける紡績業』, 日本堂書店, 1923.
- 山上金男, 『浙江財閥論』, 日本評論社, 1938.
- 小谷網吉, 『國民政府の産業政策』, 滿鐵調查課, 1930.3.
- 野澤豊, 『中國の幣制改革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81.2

논문

- 金志煥, 「官利 慣行이 中國企業 經營에 미친 影響」, 『中國近現代史研究』 49輯, 2011.6.
- 金志煥, 「南京國民政府의 公債政策과 統一公債 再論」, 『東洋史學研究』 115輯, 2011.6.

- 金志煥, 『綿業統制委員會와 南京國民政府의 綿業政策』, 『亞細亞研究』 40卷2號, 1997.12.
- 王子建, 『民國二十三年的中國棉紡織業』, 『東方雜誌』 32卷7號, 1935.4.
- 嚴立賢, 『1935年國民政府幣制改革的意義及其局限』, 『晚清以降的經濟與社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12.
- 竹林博, 『山東省の棉花合作社に就いて』, 『北支經濟事情』, 東京日支問題研究會, 1936.8.
- 名和統一, 『支那に於ける紡績業と棉花』, 『東亞經濟研究』 1, 有斐閣, 1941.3.
- 發智善次郎, 『支那綿紡織業の現段階』, 『滿鐵調查月報』 15卷 12號, 1935.12.
- 尾崎五郎, 『綿紡織業を通じて見た支那民族工業の現段階的特質』, 『滿鐵調查月報』 17卷 9號, 1937.9.
- 丁佶, 『支那棉業最近の發達』, 『支那經濟建設の全貌』, 日本國際協會太平洋問題調查部, 1937.11.
- 奧村哲, 『抗日戰爭前中國工業の研究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35-2, 1976.
- 島一郎, 『中國に於ける民族綿工業の發展と衰退』, 『經濟學論叢』 15, 1966.
- 楊天溢, 『中國に於ける日本紡績業と民族紡の相剋』, 『日中關係と文化摩擦』, 1982.1.
- Kang Chao, 『The Growth of a Modern Cotton Textile Industry and the Competition with Handicrafts』, 『China's Modern Economy in Historical Perspective』, Stanford Univ. Press, 1975.

A Study on the Customary Practices and Management Environments of Chinese Companies in the 1930s

Kim, Ji-hwan

There are two major arguments in the study of Chinese modern economic history: they are the deterioration theory and the development theory. The former argues that the principal direction of Chinese economy in those days was toward deterioration due to the China Nationalist Government and the pressure from the Imperialist Powers, putting an emphasis on deterioration and collapse in Chinese economy. Meanwhile, the latter argues that Chinese economy took a direction towards development thanks to companies' internal management innovation and the China Nationalist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The First World War created opportunities for Chinese economy and companies to develop in a breakthrough fashion. Chinese companies including cotton mills were blessed with an unprecedented chance for development thanks to a boom during war. Each nation of the West had to focus on the production of military supplies and had no room for addressing Chinese market. As a result, there was a shortage of commodities in Chinese market. The shortage caused the overall prices to rise, and the

rising prices created opportunities for Chinese economy and companies to grow and develop.

However, such development did not last long. Chinese economy and companies that enjoyed a boom during war were faced with a recession once the war was ended. Corporate management worsened due to the rising prices of raw materials including cotton and the relative decline of product prices. Furthermore, corporation's customary practices and speculations became major causes to disturb the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 and companies. In addition, the China Nationalist Government set excessively high interest rates for the government bonds issued to supplement the finance. The banks were aggressive with purchasing the government bonds and stingy with investments and loans for companies. As a result, the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nese companies was set back big time.

The China Nationalist Government made active efforts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nese companies such as forming National Economic Council and even succeeded in turning the interest of the banks from speculation to investments into companies by issuing Unification Loan and dropping its interest rate by a considerable degree. The Chinese companies also worked hard to innovate on internal management. As a result, the China Nationalist Government and Chinese companies overcame the financial panic across the world in the early 1930s and created opportuniti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

and companies. In 1936, Chinese economy began to witness the emergence of clear development signs such as companies recovering their production capacity and thu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Key Words : cotton textile industry, cotton mills, the First World War, financial panic, customary practice, unification loan, China Nationalist Government

